

천연기념물 '다 모였다'

문화재청 11월 8일까지 동해·양구·전주 순회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 동쪽 옆에는 천연기념물 제9호 수송동 백송이 서 있다. 나이를 추정할 수 없는 이 백송은 높이가 10m에 달하고 가슴높이의 둘레가 1.64m다. 전설에 의하면 나무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벗겨져 흰빛이 되는 백송은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소나무라 중국을 다녀온 사신이 중국이 원산지인 백송을 이곳에 심었다고 한다. 대웅전쪽으로 행은 가지만 살아남아 수형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조계사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강원도 정선 장암사는 천연기념물 제73호 열목어서식지로 유명하다. 정암사의 열목어서식지는 세계에서 열목어가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지역으로 함백산의 원시림과 맑고 찬 계곡물이 열목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자연과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용문사 은행나무 송광사 곱향나무 등 사진·박제로 볼 기회

있는 사찰에는 이들 외에도 경기도 양평 용문사의 은행나무(천연기념물 30호), 전남 구례 화엄사의 울벚나무(천연기념물 38호), 전남 순천 송광사의 곱향나무(천연기념물 88호) 등 다수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청이 평소 접하기 힘든 천연기념물 사진과 박제를 통해 일반에 알리는 특별전 '천연기념물과 함께하는 세상'을 17일~11월 8일까지 연다.

강원도 동해시 동해근로복지회관을 시작

으로 양구군, 전주시 등 3개 지역을 순회하는 이번 전시회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및 독도 등 천연보호구역과 명승 사진 230여점, 박제 25점을 전시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별 축제와 연계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획이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천연기념물은 식물 184점, 동물 61점, 광물 21점, 그리고 천연보호구역 5개소 등 총 271점으로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갖고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주는 석송령, 선조가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조성한 방동림, 식물지리학상 제주도 외 한반도가 이어져 있었던 지사(地史)를 보여주는 왕벚나무, 부리가 갱기처럼 생겨 가리새라는 이름을 가진 저어새, 많은 새들의 산배를 간직한 석회동굴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우리 천연기념물들이 선보인다. 042481-4886

이은자 기자 eone@buddhista.com



○조계사대웅전 동쪽 옆에 선 천연기념물 제9호 수송동 백송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방대한 사상의 세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과, 그리고 사고를 형식적인 틀에 갇히게 하는 우려를 무릅쓰고, 지난번에는 정신세계에 대한 요령을 잡기 위하여 과학을 4박자로, 철학을 3박자로 생각해보았다. 이제 종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종교는 2박자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의 핵심을 심(心)과 성(性)으로 보았다. '심'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세계를 가리키고, '성'은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세계를 의미한다. 전자는 배우지 않아도 다 알게 되어있는 인간 마음의 무한한 능력을 긍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간의 마음을 백지상태로 보고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길러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차이는 공자의 가르침을 후대에 재해석한 신유학의 발달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주자가 집대성한 학문을 '성리학(性理學)'이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天命之謂性)을 잘 길러야 한다는 면을 강조하여, '성에 곧 이치가 담겨있다(性即理)'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시켜 가는 '양(養性)'을 강조하게 되고, 이런 사고 방식은 자연히 교육을 중시하게 된다. 이에 비해 왕양명이 주장한 심학(心學)은 인간을 일방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사물을 환하게 파악하고 있는 양심(良心)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틀에 박힌 교육보다 자신의 양심에 대한 자각(自覺)과 그 실천이다. 그래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양가(兩價)적 태도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학(敎學)과 점수(漸進)는 '성'을 강조하고, 선(禪)과 돈(頓悟)은 '심'을 강조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유교는 성을 중시하고 불교는 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근거와 상황에 따라 둘을 잘 배합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종교의 가르침을 배워갈 때, 인간에 내재된 이 두 능력을 혼동하지 않고 잘 가려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질과 가능성은 잘 길러가야 하기에 매일매일 쌓아 가는(日一畝) 것이고, 양심은 이미 완전히 구비되어 있고 다만 욕망과 업에 가려 있기 때문에 나날이 버려 가는(日一擲)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양성(養性)은 배움의 세계이고, 존심(存心)은 깨달음의 세계이다. 배움은 더하기이고, 깨달음은 빼기이다.

불교사에서 심과 성은 서로 끊임없이 보완되며 발전해 왔다. 수도를 통해 건성(見性)하면 상불(成佛)이 되고, 즉심(卽心)이면 시불(成佛)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결정적으로 '심'이 '성'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유명한 혜능과 신수의 이야기이다. '마음은 깨끗한 거울이므로 먼지가 끼지 않도록 열심히 닦아야 한다'는 박식한 신수의 주장에 대해, '본래 아무 것도 없는 마음의 세계에 어디 먼지 끼일 데가 있느냐'는 무식한 혜능의 파격은 우리의 고상관념을 깨트리며 걸림 없는 무한한 마음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마음공부 하는 데는 아는 것이 오히려 병통이다'는 말은 이것을 가리킨다.

불교사상의 기본구조 (2) **심과 성 인간의 두 능력 보완 발전 관계**

심(心)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틀에 박힌 교육보다 자신의 양심에 대한 자각(自覺)과 그 실천이다. 그래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양가(兩價)적 태도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학(敎學)과 점수(漸進)는 '성'을 강조하고, 선(禪)과 돈(頓悟)은 '심'을 강조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유교는 성을 중시하고 불교는 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근거와 상황에 따라 둘을 잘 배합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종교의 가르침을 배워갈 때, 인간에 내재된 이 두 능력을 혼동하지 않고 잘 가려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질과 가능성은 잘 길러가야 하기에 매일매일 쌓아 가는(日一畝) 것이고, 양심은 이미 완전히 구비되어 있고 다만 욕망과 업에 가려 있기 때문에 나날이 버려 가는(日一擲)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양성(養性)은 배움의 세계이고, 존심(存心)은 깨달음의 세계이다. 배움은 더하기이고, 깨달음은 빼기이다.

불교사에서 심과 성은 서로 끊임없이 보완되며 발전해 왔다. 수도를 통해 건성(見性)하면 상불(成佛)이 되고, 즉심(卽心)이면 시불(成佛)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결정적으로 '심'이 '성'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유명한 혜능과 신수의 이야기이다. '마음은 깨끗한 거울이므로 먼지가 끼지 않도록 열심히 닦아야 한다'는 박식한 신수의 주장에 대해, '본래 아무 것도 없는 마음의 세계에 어디 먼지 끼일 데가 있느냐'는 무식한 혜능의 파격은 우리의 고상관념을 깨트리며 걸림 없는 무한한 마음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마음공부 하는 데는 아는 것이 오히려 병통이다'는 말은 이것을 가리킨다.

■문학평론가

추석특집 보도·교양 등 다채 "BBS 주파수 고정"

불교방송은 추석연휴를 맞아 30일부터 10월3일까지 음악·보도·교양·대담 등 다양한 장르의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29일 방송되는 '10시 간 특별 생방송, 고향의 정 가득히'(오전 11시10분~저녁 9시)다. 이 프로그램은 황정원, 김은정, 김병조 등 불교방송의 간판급 진행자들이 총출동해 귀향길 교통정보는 물론 유명 연예인들의 한가위 추억담과 청취자들의 고향 이야기들을 나누는 음악과 함께 소개해 준다. 국악인 신영희씨와 개그맨 임종국씨가 진행하는 '한가위라 좋으시고 재미나 청청나네'(오후 2시~오후4시)에서는 이은관, 이상강, 김일구 등 명인명창들이 꾸미는 국악 라이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한가위 분위기를 신명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양일간 편성되는 '2001년 문화계의 주역들'(오후 6시15분~오후 8시)에서는 하재봉(문화평론가)씨의 진행으로 김기덕(영화감독), 안재욱·김현정 김민기(가수), 신경숙(소설가) 등이 출연해 우리 대중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전진수 편성개발부장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즐거워야 할 고향가는 길이 오히려 짜증스럽게 바뀌고 있다"며 "주파수를 불교방송에 맞추면 흥겨운 음악과 함께 신속한 교통정보와 불교소식 등을 들으며 즐거운 귀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석 특집의 편성취지를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고영을작 '관음보살'

고영을의 탕화 독일가다

23~30일 베를린서 초대전

탕화가 고영을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탕화 초대전을 갖는다. 23일부터 30일까지 2001년 아시아 태평양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고씨는 현대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지옥의 모습을 그린 '시왕도'를 비롯해 금박으로 표현한 '관음보살', 염색된 위에 그려낸 '월광이여 은누리 가피를', '물소리 바람소리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 '우리의 소원을 통일' 등 다양한 고씨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다. 프랑스 미술평론가 마필드글라네는 '비단이나 천으로 된 고씨의 대작들은 풍부한 감성과 생명력 넘치는 색감, 그리고 내 마음이 곧 우주'라는 불교적 정신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고씨의 작품을 평했다.

다른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경주에서 선보이기 위하여 준비했다. 이 프로젝트는 2000년 10월 이래로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두 곳의 이질성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원동력으로서 대량의 강철자재를 생산해 온 대표적인 장소로서의 펠클링엔 제철소는 이성과 진보에의 믿음을 대표하고 있으며, 동양 종교의 성소로서 경주 석굴암은 공(空), 해탈,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상반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조각과 사진, 설치, 전자매체, 음향설치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054745-7075



○세계문화유산인 독일 펠클링엔 제철소와 경주 석굴암의 같음과 다름을 표현한 설치작품

독 펠클링엔 제철소와 한국의 경주 '같음과 다름은?'

아트선재미술관 10월 17일까지 전시

아트선재미술관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독일 펠클링엔 제철소와 한국의 경주를 연결하는 사이트익스체인지(Site-Exchange) 프로젝트 같은 그리고 다른 전을 10월 17일까지 연다.

1981년 문을 닫은 펠클링엔 제철소는 1994년 유엔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산업문화와 20세기의 기술사에 있어 획기적 증거물로서 등록되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세계문화유산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독일 자르 조형대학의 볼프강 네슬러 교수의 제자 14명을 주축으로 1998년부터 세계문화유산 펠클링엔 제철소/한국의 경주 프로젝트를 그들을 구성, 작가적인 눈으로 바라본 펠클링엔 제철소를 전혀 이질적인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6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갖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습기능은 일반편의 10배, 무릎이나 피로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